

한국인의 소득양극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유형*

김 동 수 김 옥 환 이 상 현 정 태 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한국인의 구체적인 인식을 알아보고 이를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거주하는 38명의 연구대상자에게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이를 질적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양극화 원인에 대하여 계층이동 불가능유형, 중산층 가능유형, 부유층 가능유형, 계층이동 가능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소득양극화의 해결책에 대하여 진보적 해결유형, 중도진보적 해결유형, 중도보수적 해결유형, 보수적 해결유형의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원인인식과 해결책인식을 교차하여 본 결과, 한국인은 대체로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보수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해결책에서는 진보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 유형별 의미와, 한국사회에서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루기 위한 시사점등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소득양극화, 빈부격차, 인식유형, 부유층, 빈곤층, 진보, 보수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9-328-B00093).

† 교신저자 : 정태연,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 tjung@cau.ac.kr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마태복음 25장 29 절)” 수천 년 전에 쓰인 성경의 이 구절은 최근의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하나의 전언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는 듯하다. 이는 1997년의 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경제위기 이후 고조된 사회적 불안 및 위기의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더군다나, 소득양극화의 실태와 그 효과를 다룬 지난 10여 년 간의 연구들에 따르면(강승복, 2004; 김경모, 2001; 김대일, 2007; 김병조, 2007; 김상호, 김병선, 2006; 김홍중, 2006; 남상호, 임병인, 2005; 박경숙, 2008; 박세경, 2005; 신원철, 2005; 이성용, 방하남, 2009), 이러한 양극화에 대한 전망은 더욱 부정적이다. 가령, 최근에는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경제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교육, 의료, 정치 분야에 이르기까지 사회전반에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오고 있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이 연구자들은 한국사회 및 세계경제시장 구조의 거시적 안목으로 볼 때, 소득양극화 문제는 앞으로 한국사회에서 장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가 될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회에서 소득양극화의 원인 및 이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신명호, 2005; 신명호, 2006; 김홍중, 2006; 김연희, 이희선, 2009; 신동면, 2006; 홍종학, 2006; 우재은, 2003, 윤종훈, 2005)들도 다수 있어왔는데, 전반적으로 그들의 연구결과는 매우 다양해서 일관적이지 않았다. 예를 들어, 안종범과 석상훈(2006)은 양극화 개념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의해서 과장되고 왜곡되었으며 양극화의 개념 자체가 계층 간 갈등을 파생시키는 오용되기 쉬운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신명호(2006)는 소득양극화 현상에 ‘신빈곤’이라는 개

념을 들여와 양극화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 한국사회는 여전히 첨예한 갈등과 대립 속에 있어 건설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적 해결방안을 도출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그 한 가지 이유로, 양극화의 원인을 찾고 해결책을 분석할 때 일반인뿐만 아니라 연구자들도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담론이나 가치체계를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측면에서의 개인차는 곧 양극화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안종범과 석상훈(2006)은 소득양극화 개념이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하기 쉬운 정치적 용어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 가지 담론 중에 한 가지 특수한 담론의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신명호(2006)는 양극화현상은 빈곤으로서의 ‘사회악’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미리 설정함으로서 전자와는 대조되는 담론에 위치하고 있다. 이처럼 연구자들의 연구들조차도 사회적 담론체계에서 완전히 객관적이거나 중립적일 수 없으며, 학계의 연구에서 조차, 문제의 원인 인식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점이 판이하게 구별되어 나타나는 점은 왜 소득양극화에 대한 합의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길이 어려운지를 설명하게 해준다.

그러므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볼 때, 정치적 담론 체계 즉 진보와 보수적 입장이 소득양극화를 보는 연구자의 입장과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진보적 입장과 일관된 견해를 가진 연구자는 소득양극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며, 사회구조적 문제가 소득불평등의 원인이고, 소득불평등의

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양극화 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¹⁾. 이러한 입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연구들은 대체로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잘못된 사회 및 경제구조에서 찾으면서, 이로 인하여 경제위기가 발생하였고 이것이 소득양극화와 실업을 심화시켰으며 중국에는 사회불안을 야기한다고 본다. 따라서 양극화 현상은 한국사회의 미래 통합의 전망을 어둡게 하며 사회전반의 분위기를 퇴조시키기 때문에, 정부와 사회가 사회구조의 변혁 및 사회복지 향상을 통해 소득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류정순, 2005; 신동면, 2001; 신명호, 2005; 신명호, 2006; 우재은, 2003).

반면에, 보수적 입장과 일치하는 연구들은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 사회구조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자본주의사회에서 필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소득의 양극화 현상보다는 빈곤층이 증가하는 현상을 더욱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해소보다는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켜 빈곤층을 감소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이러한 입장과 일치하는 연구들 중에서는 그러한 잘못된 사회구조로 인한 경제위기-소득격차-사회양극화-사회갈등으로 이어지는 도식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으며(김상호, 김병선, 2006; 안종범, 석상훈 2006), 사회양극화 현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나 사회의 분배정책에 의한 적극적인 개입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거나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입장에서 그들은 국가나 사회의 개입으로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보다는

고성장 시장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로 절대적 빈곤층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유경준, 2007; 유종일, 하준경, 2006; 안종범, 석상훈 2006).

이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의 연구가 특정한 정치적 담론 속에서 위치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이로 인하여 소득양극화에 대한 합의적 담론이 형성되기 보다는 각자의 담론에서 구성된 가치체계 속에서 연구를 각자 수행함으로써 서로 각기 다른 방향을 지향하는 결과만 나타나게 되고, 오히려 합의적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마저 있다. 이와 같은 가능성이 한국사회의 일반 국민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말하자면, 그들 역시 자신들의 정치적 가치체계에 따라 소득양극화를 보는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담론이나 의사소통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소득양극화 주제와 같은 대립적인 정치적 담론이 개입될 수 있는 연구주제에 대하여 여러가지 대안적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보다 폭넓은 관점을 견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방향으로서 소득양극화라는 현상이 실제로 현재 한국의 사회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를 선행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구는 소득양극화를 바라보는 사회구성원들의 현 상태를 밝혀주고 특히 이 문제에 대한 그들 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여줌으로써, 추후 소통하고 논의해서 합의해야 할 내용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소득양극화 연구에 대한 접근 방식이 기존의 연구와는 다르게 그 출발점을 재설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소득양극화 연구에서 또 다른 근본적인 문

1) 정치적 담론에 의하면 소득양극화 문제를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진보적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 중 하나는 소득양극화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김상호와 김병선(2006)은 소득양극화에 대한 정의 즉 소득양극화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불분명하고 모호한데, 이는 사회적으로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에서 작용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분석하였다. 즉, 소득양극화의 개념은 한 두 명의 단순한 관찰자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많은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관찰을 통해 만들어진 상호 얽힌 복합적 그물망을 가리키는 개념이다. 이는 한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한정지어서 논의하는 소득양극화의 개념이 사회의 다른 부분에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가 경험적으로 인식하는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사실은 한 개인이나 일부집단이 한정지을 수 없는 매우 다양한 수준과 층위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소득양극화를 수리적으로 조작정의하고 제한된 개념을 통해 그 문제를 파악하고자 함으로써, 소득양극화에 대한 다층적인 수준의 논의를 단순화시키고 있다. 즉 양극화 현상에 실제로 직면해 있는 사회 각 주체들의 실질적인 경험의 내용들이 단순히 숫자상의 문제로 환원되고 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득양극화 문제가 사회 및 정치적 담론이나 가치체계와 분리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개념상에서도 특정하고 명료하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복잡하고 포괄적인 문제라는 점은 소득양극화 연구할 때 우선적으로 짚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양극화에 문제에 대한 접근의 난점들과 더불어 새로운 방향에서 문제를 조망해보고자 하는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김상호와 김병선(2006)은 경제적 불평등을 생활양식의

불평등으로 볼 때 양극화의 문제는 단순한 소득과 재산의 문제를 넘어서서 복잡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이며, 이는 삶의 일상적 영역에서 등장하는 라이프스타일과 관계되는 문제라고 진단하였다. 또한, 박경숙(2008)의 연구는 불평등에 대한 실제적 경험과 불평등을 인식하는 것 사이에는 다양한 적응과정이 매개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경제적으로 불평등하더라도 그 밖의 사회관계, 문화, 심리적 요인들에서 심각한 박탈경험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평등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은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단지 경제적 측면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며, 사회구성원들의 사고, 가치, 행위, 의식체계를 통괄하는 문화 격차를 야기하는 대단히 복잡한 층위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득양극화 문제를 이미 규정된 가치체계 속에서 다루기보다는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수준에서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고자 시도하였다.

더욱이 이러한 연구들이 지적한바와 같이, 소득양극화의 문제가 개인의 주관적인 삶의 경험과 관계된다면, 이는 개인의 일상적인 인식경험 및 심리적 내용이 소득양극화를 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즉, 양극화의 문제에서 구조적인 측면과 더불어 의식적인 측면도 중요하고(김상호, 김병선, 2006), 사회구성원의 불평등의 경험이 실제적인 불평등의 구조에 의한 수동적인 반응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박경숙, 2008), 그들은 사회경험을 능동적이고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자신의 계층이나 계급의식, 사회적 욕구를 기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여 계급지위를 몸과 정신, 욕구에 체화되도록 훈련하고

타인과 구별 지음으로써, 불평등의 지배는 주체가 계급 정체성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재생산된다(홍성민, 2000; 장미혜, 2002; 신명호, 2006). 즉 불평등 및 양극화는 단순히 사회구조가 개인의 삶의 밖에서 행위, 의식, 욕구, 도덕 감정을 만들어냄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삶 안에서 경험되고, 해석되면서 심리적 과정 안에서 재생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은 실제적인 사회구조에 못지않게 구성원들의 사회 인식이나 의식의 구조가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개인내적인 심리적 과정을 다루는 연구는 현재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심리학분야에서는 특수한 계층의 심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박상규, 이병하(2004)의 연구와, 사회경제적 현상이 가족 및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조혜자, 방의정(1998)의 연구가 소득과 개인의 연관성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주제와 가장 근접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소득양극화에 대한 합의적인 해결에 이르기 위해서는 한쪽의 담론이나 가치체계에 편향되지 않도록 가치체계에 대하여 판단을 유보하고 다양한 입장을 동등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인들이 소득양극화에 대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인식 전반을 그 자체로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그러한 다양한 인식에서의 차이점들을 비교함으로써 그 속에서 어떻게 합의적 의사소통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 둘째, 소득양극화란 단순히 경제적, 통계적 의미의 수량으로 환원되거나 사회구조적 문제만으로 한 정지를 수 없는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한 층위

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오히려 삶의 과정에서 실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된 개인들의 사고, 가치, 의식, 정서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인 인식에 관한 문제가 소득양극화의 현상 일반을 규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득양극화 현상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인식주체들이 삶의 경험에 직면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의 다양성을 살펴봄으로써 소득양극화 현상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사회구성원들의 인식경험의 구성체임을 밝힘과 동시에, 분석기준의 틀 안에서 다양한 인식의 양상들을 체계화하여 그 유형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인에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인식경험의 내용들을 원인과 해결책 및 입장 기준으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진행 방법으로 먼저, 소득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양극화의 두 가지 계층인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다음으로 소득양극화의 해결책 및 입장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보고 어떠한 입장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연구방법

조사대상

세대 및 정치적 성향, 소득을 고려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총 38명의 성인을 연구대상자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

| 변인 | 구분 | 명수 | 비율 | 변인 | 구분 | 명수 | 비율 |
|----|------|------|------|----|-----|----|------|
| 성별 | 남 | 19 | 50% | 직업 | 공무원 | 2 | 5% |
| | 녀 | 19 | 50% | | 자영업 | 2 | 5% |
| | 계 | 38 | 100% | | 전문직 | 3 | 8% |
| 세대 | 20 대 | 13 | 34% | 인식 | 회사원 | 14 | 37% |
| | 30 대 | 11 | 29% | | 학생 | 10 | 26% |
| | 40 대 | 7 | 18% | | 주부 | 5 | 13% |
| | 50 대 | 7 | 18% | | 무직 | 1 | 3% |
| | 계 | 38 | 100% | | 기타 | 1 | 3% |
| 소득 | 상 | 2 | 5% | 인식 | 계 | 38 | 100% |
| | 중상 | 9 | 24% | | 심각 | 30 | 79% |
| | 중 | 15 | 39% | | 보통 | 7 | 18% |
| | 중하 | 9 | 24% | | 경미 | 1 | 3% |
| | 하 | 3 | 8% | | 계 | 38 | 100% |
| 계 | 38 | 100% | | | | | |

로 선정하였다(표 1 참조, 연구대상자별 정보는 부록 표 1 참조). 선정된 연구대상자들은 2010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면접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연구의 분석과정 중에서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입장을 밝힌 경우에 전화면담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보충면접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통해 먼저 원인과 해결책에 대하여 각각 질적 내용분석을 실시했다. 내용분석은 관심 변인이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관찰이나 면접 등을 사용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이미 산출해

놓은 텍스트를 체계적으로 양적 혹은 질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다. 내용분석은 본질적으로 텍스트의 외현적이고 현재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문맥이나 내용 속에 숨어 있는 암묵적이고 잠재적인 내용을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Maryang, 2000). 본 연구에서는 분석단위를 문장이나 단락에 내포된 주제를 분석단위로 하는 질적 내용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텍스트에 포함된 태도, 가치, 신념 등을 연구함으로써 대개 현실적이고 분석내용에 가깝다는 장점을 갖지만, 단어 내용분석에 비하여 한층 어려우며 여러 주제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중심적인 주제를 가려내기가 어렵다. 이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Weber, 200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신뢰도와 타당도 문제를 최소화 하기위하여 평정자간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평가자를 이용하여 그들 간 합의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평가자간 신뢰도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하여 각각 .83과 .79이었다. 각 하위 범주의 상호배타성과 내용의 전체적 포괄성의 두 가지 원칙에 의하여 분류하였으며, 응답내용에서 만족 혹은 불만족의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거나 응답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사전달의 내재된 내용(latent content)을 추론하여 분류를 시도하였다. 구체적으로 부유층 및 빈곤층이라는 단어에서 연상되는 이미지 및 정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그 단어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 기준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그리고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았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얻은 자료들 중에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였고, 심층인터뷰와 질적연구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받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3명의 연구자들의 합의를 통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원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2개의 상위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으며, 소득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에의 구체적인 내용을 3개의 상위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그 다음, 이렇게 분류한 상위범주들을 분석기준으로 하여서 유형을 나누었다. 그 결과 소득양극화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해서 각각 4가지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으며, 원인과 해결책을 교차할 경우 총 1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결 과

소득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유형화

소득양극화 원인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소득양극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전반적인 질문을 실시하였다. 또한, 보다 일상 생활경험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인식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인들이 부유층과 빈곤층에 가지고 있는 인식을 알아보았다. 즉 “양극화의 두 계층인 부유층과 빈곤층의 정의는 무엇이며, 이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들의 소득의 원인이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질문을 실시하였다.

소득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전반적인 질문에 대하여 참여자 대부분이 거시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서 사회구조적인 원인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즉 자본주의의 모순, 경제위기, 잘못된 경제 및 사회구조 등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가 많아, 참여자들 간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다. 반면, 부유층과 빈곤층의 소득 원인에 대하여 내용분석 결과, 2개의 상위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먼저 환경조건의 상위범주에서는 물려받은 재산, 교육여건, 사회계층장벽, 국가정책 및 사회제도의 하위범주가 나타났고, 개인적조건의 상위범주에서는 능력, 성실성, 사고방식 및 의식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항목으로 운이 있었으나 이는 환경적조건과 개인적 조건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서 기타범주로 분류하였다.

환경적인 조건이 부유함과 빈곤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에서는 연구 참여자가 모두 동의하였으나, 개인적 조건이 부유함이나 빈곤함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데에서는 다소 다른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소득의 원인으로 도출된 개인적 조건에 따라서 부유함과 빈

곤핍의 원인인식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변별되는 유형으로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들 각 유형마다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이미지와 대상 및 기준이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표 2).

첫 번째 유형으로, 부유함과 빈곤함이 모두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개인적 조건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응답한 유형으로서, 이는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계층이 이미 결정된다고 인식하였기 때문에

‘계층이동 불가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유층의 이미지는 재벌이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 많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자본을 모으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적인 부유층의 이미지로 보고 있었으며, 부유층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빈곤층은 노동자를 포함한 서민의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적이거나 수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부유층이

표 2.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내용과 그 유형화

| 부유층에 대한 인식 | | | | |
|---------------|------------------|---------|-------------------------------------|--------------------|
| 유형 | 원인 | 이미지 | 정의 및 대상 | 태도 |
| 계층이동 불가능형 | 환경적 조건 | 부정적 이미지 | 재벌, 자본가, 기업 CEO, 수백억 이상 자산가, 투자가 | 다른 세계의 사람, 반감, 이질감 |
| 빈곤층 → 중산층 가능형 | 환경적 조건 | 부정적 이미지 | 재벌, 자본가, 기업 CEO, 수백억 이상자산가, 투자가 | 다른 세계의 사람, 반감, 이질감 |
| 중산층 → 부유층 가능형 | 환경적 조건 개인적 조건 | 수용적 이미지 | 자영업자, 전문직종종사자. 10억 이상 자산가 | 희망함, 퇴고자함 |
| 계층이동 가능형 | 환경적 조건 개인적 조건 | 수용적 이미지 | 자영업자, 전문직종종사자. 10억 이상 자산가 | 희망함, 퇴고자함 |
| 빈곤층에 대한 인식 | | | | |
| 계층이동 불가능형 | 환경적 조건 | 수용적 이미지 | 불운, 재해로 인한 장애인, 불경기로 인한 실업자 및 사업 실패 | 주변서 흔히 발생, 가까움 |
| 빈곤층 → 중산층 가능형 | 환경적 조건 개인적 조건 | 부정적 이미지 | 거리 노숙자, 약물 및 도박 중독자, 범죄자나 사회 부적응자 | 격리, 분리, 사회적 관리대상 |
| 중산층 → 부유층 가능형 | 환경적 조건 | 수용적 이미지 | 불운, 재해로 인한 장애인, 불경기로 인한 실업자 및 사업 실패 | 주변서 흔히 발생, 가까움 |
| 계층이동 가능형 | 환경적 조건 개인적 조건 | 부정적 이미지 | 거리 노숙자, 약물 및 도박 중독자, 범죄자나 사회 부적응자 | 격리, 분리, 사회적 관리대상 |

아닌 사람들을 빈곤층의 의미에 가까운 서민으로 인식함으로써 다른 유형들과 비교해서 두 계층이 확연히 변별되는 양극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

사례 4. 자수성가는 70 80년대나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 얘기이고.....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돈을 만드는 거라 없는 사람들은 기껏해야 죽을 때까지 10억 정도 벌까. 이 사람들은 부유층이 될 수 없는 거고, 있는 사람들은 잃어도 그만인 거고. 자기능력이라기 보다 물려받은 것이라고 보는 거지. 극소수가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겠지만. 빌게이츠 같은 경우는 외국에나 가능한 거지.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가난한 사람들 경우에는 무능력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도 따지고 보면 환경적인 게 크다고 생각해, 좋은 집안에서 잘 키우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 좋은데, (빈곤층은) 자존감도 낮아지고.....(중략) 근데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돈을 못 버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바닥 일에서 열심히 일하지만 수입 자체가 작은 거니까. 사회구조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가 크다고 생각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능력하고 열심히 안 살고 그래서 못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

다음으로 부유함의 원인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빈곤함의 원인은 환경적인 조건 이외에도 개인이 노력하면 빈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이를 ‘빈곤층 → 중산층 가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부유층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

해 부유층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 부유층이란 계층이동불가능유형에서의 부유층의 이미지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재벌이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 많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자본을 모으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적인 부유층 이미지로 보고 있었으며, 부유층에 대해서 대체로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이 성실하게 노력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빈곤층에서 벗어나서 서민이나 중산층에 근접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빈곤층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노숙자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보조금만 바라는 무능력자들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사례 26: 정부에서는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데 쉽지 않죠. 우리나라 특성상 돈을 가진 사람들이 버는 게 더 쉬우니까요. (중략)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정보가 가장 중요한데 그 정보를 기득권들만 공유를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중략) 또래에 부유한 사람들을 보면, 재산을 덕으로 해서 부유함을 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교육 수준에 있어서도,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좋은 교육을 받았고, 또래에 비해서도 그런 부분이 풍부한 것 같습니다. 빈곤층의 경우, 들어보면 개개의 사정도 있을 것이고 국가의 교육제도도 분명한 책임이 있지만 개인의 의지 문제를 빼놓고는 생각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셋째 유형으로 부유함의 원인은 환경적 조

건 이외에 개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빈곤함의 원인은 거의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를 ‘중산층 → 부유층 가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개인이 노력여하에 따라 부유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부유층의 이미지는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 성공한 자영업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유층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층의 이미지는 대개 장애인이나 심신취약자와 같이 운에 의하거나 경제불황으로 인한 사업 실패, 부도한 경우 그리고 사회구조상 교육과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들에 대해서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사례 30: 부유함도 개인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봐요. 능력을 통해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여하간 개인의 능력이 부유함의 중요한 원인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가난은 빚을 통해 대물림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회적 구조 때문에 빚이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대물림 되는 거죠. 부채에 사회제도까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리고 부자는 자기가 원래 돈 있는 것으로 공부를 해서 그만큼 능력을 키워서 그만큼 더 많은 수익을 얻으니까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는 거고 능력이 생기겠죠..... 빈곤층은 아프거나 아니면 가족구성원이 이뤄지지 않고 부모님이 없는 상태, 아이들이 가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 같은 경우, 그러니까 부모의 부채 같은 환경 때문에 능력을 키울 수도 없고 그래서 교육받을 기회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 가난에서 계속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형으로, 부유함과 빈곤함의 원인이 모두 환경적 조건 이외에도 개인적인 노력이나 성실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으로 이에 대해서 ‘계층이동 가능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들은 부유층에 대한 이미지의 경우 부유층가능형의 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나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 성공한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부유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부유층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층에 대해서는 중산층가능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나서 대부분 노숙자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보조금만 바라는 무능력자들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한국사회에서 소득양극화가 그다지 크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산층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례 6: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구요. 부모님의 자산, 재산도 중요하구요. 사회적 여건 같은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 환경은 개인이 만들 수 있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개인의 문제 능력, 의식이나 노력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능력도 중요하고 능력이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해서 잘 못사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도 성실함이나 자기관리를 위한 노력 등에 의해서 잘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빈곤층의 경우에 집이 부자도 아닌데 성실하

지 못하거나.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안의 대물림이나 개인의 노력 성실성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즉 연구참여자들은 부유층과 빈곤층이 되는 소득의 원인과 이들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정의 및 대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식유형이 나누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는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사회구조적 현상을 통해서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인식하기보다는 자신의 일상경험 속에서 그들 자신과 비교되는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소득양극화 문제를 개념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별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의 경우 유형 순서별로 37.83, 36.43, 37.00, 34.75로 나타났으며, 소득(‘하’를 1점으로, ‘상’을 5점)에서 3.00, 2.71, 2.67, 3.19로 나타났고, 양극화 심각성 인식정도(‘심각하지 않음’을 1로, ‘매우 심각함’을 5점)의 경우 4.83, 3.86, 4.00, 3.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계층이동 가능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약간 젊은 것으로 보이고, 소득의 경우는 계층이동불가능형과 계층이동가능형이 나머지 두 유형에 비해 약간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계층이동 불가능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소득양극화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의 해결책에 대한 인식 및 유형화

참여자들에게 “소득양극화의 해결책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개방형 질문을 한 결과, 소득양극화를 당연히 해소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보

다는 당위성 자체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양극화를 당연히 해소해야한다고 보는 인식을 가진 경우도 있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 빈곤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국가나 다름없음으로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입장도 있었다. 그러므로 절대적 빈곤을 줄여야 하는 것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상대적 빈곤도 가능한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상대적 빈곤까지 줄일 수 없거나 줄여서는 안 된다는 두 가지 입장으로 나눌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한 결과, 3개의 상위범주와 8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국가 및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상위범주에서는 빈곤층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 빈곤층에게 교육여건 제공,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에 대한 하위범주가 있었고, 부유층의 책임의 상위범주에서는 부유층에 대한 높은 세율부과, 부유층의 기부 및 자원봉사 활성화, 부유층들의 인성교육 및 의식함양이 있었다. 그리고 빈곤층의 책임의 상위범주에서는 빈곤층의 의식함양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들 세 가지 상위범주를 통하여 소득양극화 해결책의 인식유형을 살펴본 결과, 빈곤층에 대한 각종 복지정책, 빈곤층에게 교육여건 제공,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및 물가안정과 같은 국가 및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모든 응답자가 동의하였다. 그러나 부유층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졌는데, 첫째, 부유층이 책임을 지도록 적극적으로 강요해야 한다는 입장과 둘째, 부유층뿐만 아니라 빈곤층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으며, 이들에게 책임을 강요하기 보다는 기부나 자

표 3. 소득양극화의 해결책에 대한 인식유형

| 유형 | 소득양극화의 책임주체 | 빈곤층에 대한 해결책 |
|------------|----------------------------------|------------------------|
| 진보적 해결유형 | 국가 및 사회적 책임 부유층의 책임 강요 | 절대적 빈곤 감소 상대적 빈곤 감소 |
| 중도진보적 해결유형 | 국가 및 사회적 책임 부유층 및 빈곤층의 자발적 책임 | 절대적 빈곤 감소 상대적 빈곤 감소 |
| 중도보수적 해결유형 | 국가 및 사회적 책임 부유층 및 빈곤층의 자발적 책임 | 절대적 빈곤 감소 |
| 보수적 해결유형 | 국가 및 사회적 책임 | 절대적 빈곤 감소 |

발적 자원봉사, 소득과 소비에 관한 의식함양 등의 해결책이 적절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다음으로 어떤 계층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닌 정부 및 사회가 빈곤층을 줄이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인식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위의 두 가지 소득양극화 해소에 대한 입장과 소득양극화 해결에 대한 입장을 교차해서 보면(표 5), 총 4가지 인식유형을 확인할 수 있었다(표 3)²⁾.

먼저 첫 번째 유형으로, 절대적 빈곤뿐 만 아니라 상대적인 소득격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부유층이 책임을 지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정치적 담론에 의하면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배적 관점에 있기 때문에 “진보적 해결 유형”이라고 명명하

2)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키는 것을 반대하면서도 부유층에게 책임을 강요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과 상대적 빈곤을 감소시켜야하면서도 부유층에게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고 보는 입장(그림에서 가는 글씨부분)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소수의 사례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었는데, 추가 인터뷰를 통해서 이에 대해 입장을 분명하게 확인 하였다.

였다.

사례 10: 기본적으로 교육여건이 되고 부유한 동네가 된 것은 정부가 자원을 많이 투자해서 우수한 인프라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집값이 올랐으면 사회에 다시 내야지요. 사회 인프라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의 노력이잖아요. 그 대신 자원투자가 됐으니까 어느 정도는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야하는데....

사례 32: 기업에서 능력 좋은 사람은 연봉 수십억씩 책정해주고 아닌 사람은 중간에 잘라 버리니 그 잘리는 사람 어디 가겠어요. 40대에 오라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중산층이 무너진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나 기업에서 어떤 해결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는 안정되게 보장을 좀 해줘야 되는 게 아닐까요? 능력자들의 연봉 부분을 좀 줄여서라도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야 사회가 덜 삭막하지 않겠어요.

둘째, 절대적 빈곤뿐 만 아니라 상대적인 소득격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부유층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이들의 입장은 정치적으로 사회적 자원에 대한 분배적 관점에 있기 때문에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극단적인 해결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중도-진보적 해결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사례 5: 해결책은 글썸. 정부나 국가의 준비된 정책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빈부격차를 줄이는 게 장기적으로는 맞겠지.... 후진국에 비교해서는 기회의 땅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상위권의 나라이고 외형적으로는 그래도 중상위의 레벨에 있다고 보지만, 그거에 걸 맞추서 기존의 부유층이 줄부처럼 정신적인 기반 없이 외향적으로만 커지니까 정신적인 도덕적인 부분 책임감등에서 취약한 거야. 이 사람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지금 정책으로 있는 사람한테 빼서 없는 사람에게 주고 하는 식의 정책을 만든다 한들 (부유층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사회변화가 안 생기지. 그래서 근본적인 것(의식)부터 바뀌어서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가야지.

셋째, 절대적 빈곤을 줄여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인 빈곤까지 줄일 수는 없으며, 절대적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면 좀 더 긍정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유

형이었다. 이들의 입장은 자본주의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분배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유층이 사회적 정의 실현이나 분배가치를 위해서 부유층이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도-보수적 해결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사례 3: 당연히 양극화는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근데 격차를 줄여야 하는 게 애매한 게 절대적인 빈곤보다도 상대적인 빈곤이 더 큰 것 같아요. 상대적인 빈곤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선은 절대적인 빈곤을 줄여야 하구요. 근데 빈곤층을 끌어올려야 하는데 부유층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가수 김장훈 같은 경우에 사글세 살면서도 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많아야 할 것 같아요.

사례 24: 상속 재산과 상대적 빈곤감이 문제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도 정부의 어느 정도 개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강압적인 방법보다는 기부 풍속 같은 것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기분 좋게 부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좀 더 긍정적인 해결방안인 것 같아요. (중략) 부유층이 먼저 자발적으로 그런 의식을 가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제제도를 특화시키는 게 어떨까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대학교)가 아닌, 어려운 개인에게 기부를 해도 공제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면 좋지 않을까요?

넷째, 절대적 빈곤을 줄여야 하지만, 자본주

의 사회에서 상대적인 빈곤까지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절대적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부유층에게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이들의 입장은 자본주의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분배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개인에게 책임을 더욱 강요해서는 안 되는 자유경쟁을 선호하기 때문에 “보수적 해결유형”이라고 명명하였다.

사례 2: 양극화를 해소한다기보다는 부유층은 잘살기 때문에 여건이 갖추어졌으니 어차피 잘 살수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근데 빈곤층이 문제인데. 양극화해소는 차이를 줄인다는 건데 그렇게 아니라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해주던가, 복지제도를 강화해서 저소득층에게도 사회진출의 기회를 더 마련해 주는거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의 기회를 줘서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기초생활수급을 위한 돈을 지급하는게 그 사람들에게 부족할거란 말이예요. 그 사람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아요. 특정계층에게서 세금의 액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사례 27: 세금을 너무 과하게 징수해서 안 돼지. 그래야 신이 나서 돈도 벌고 세금도 낼 수 있으니까. 정작 중요한 것은 세금 열심히 내고 나중에 파산 했을 때 사실 보장책이 없단 말이야. (중략) 세금을 엉뚱한 곳에 쓰지 않고 탈세같은 것만 잘

잡아내고, 효율적으로 잘 쓰기만 해도 복지 차원에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금보다 더 투자할 수 있지 않을까?

즉 연구 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소득양극화의 해결책은 소득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느냐에 대한 입장과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다양하게 인식유형이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유형화는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의 분배와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연구대상자들은 추상적인 이데올로기나 정치적인 담론을 통해서 해결책을 구성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분배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득분배의 방식과 책임소재를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유형별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평균연령의 경우 유형 순서별로 39.54, 32.82, 34.80, 35.78로 나타났으며, 소득(‘하’를 1점으로, ‘상’을 5점)에서 2.69, 3.36, 2.80, 2.89로 나타났으며, 양극화 심각성 인식 정도(‘심각하지 않음’을 1로, ‘매우 심각함’을 5점)의 경우 4.23, 4.09, 3.80, 4.0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진보적 해결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약간 나이가 많고 중도진보적 해결유형이 나이가 젊게 나타났다. 소득의 경우는 중도진보적 해결유형이 나머지 유형에 비해 약간 높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진보적 해결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소득양극화를 더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 인식 전체에 대한 유형분석

다음으로 한국인의 소득양극화의 원인 네

가지 유형과 해결책에 관한 네 가지 유형을 교차하여 보았다. 그 결과 참여자들의 많은 수가 소득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두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1). 즉, 참여자들의 많은 수가 소득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두면서도 소득양극화의 해결책은 절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유층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 유형). 이러한 점은 연구참여자들이 소득양극화의 원인은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서도³⁾ 해결책은 진보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례를 살펴 본 결과 부유층이 부유한 이유는 개인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책임의식을 가지면서 빈곤층에 대하여 온정주의적인 배품의 미덕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사례 31: 한국에서 부유층의 수입이 많은 원인에는 능력이 약 45%, 재산 20%, 노력 15%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혹은 이러한 부유층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반으로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다고 하여도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은 없어요. (중략) 소득격차

3) 계층이동 불가능유형과, 빈곤층 → 중산층 가능형, 중산층 → 부유층 가능형의 경우, 개인적 노력 및 성실성에도 불구하고 부유층이 될 수 없거나(빈곤층 → 중산층 가능형) 혹은 중산층이 될 수 없다(빈곤층 → 중산층 가능형)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환경이나 구조적 모순의 중요성을 지적한다는 측면에서 계층이동가능형과 구별하였다. 즉 사회 및 구조적 모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여부에 따라서 구분하였으며, 계층이동가능유형을 다른 세 가지 유형과 변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그림 1).

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봐요. 부유층이 자신의 능력을 자기 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책임감 측면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나누어서 함께 가는 것이 인간사회가 아닐까요?.

그리고 A유형과 C유형과 같은 경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이 B유형보다 일관적인 경우이다. A유형의 참여자들은 소득의 원인에서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실성은 중요하지 않고, 사회적인 조건에 의하여 양극화된 계층이 결정된다고 봄으로서 한국사회에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었다. 그리고 절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도 감소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서 부유층의 부가 재분배되어야 한다고 보는 분배가치에 대해서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사례 4: 나는 사회구조가 있는 사람들 위주로 계속 유리하게 돌아간다는 거지. 바뀌기도 쉽지 않고..... 내가 다니는 작은 회사에서도 오너가 놓지 않으면 밑에 사람이 올라갈 수 없어. 대기업은 더 심한거고, 말단 직원 중에서 임원이 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지. 잘사는 사람들은 그들끼리 뭉치고 나누어 주려고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회구조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기면 된다, 개인이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만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만든 규칙대로 논다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게임이지. 노력은 누구나 다 열심히 하지. 말은 바대로 살려고 하고. 성실성 운운하는 것은 있는 사람들 논리지. 그렇게 말하면 안 찢리는 사람이 솔직히 어디있어? (중략) 소득양극화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게 뭐있어? 위에 사람이 내놓아야지. 그 사람들이 안 내놓으니까. 그런데 세금을 많이 내는 것에 대해서 불만인 사람이 많아.....

C유형의 참여자들은 소득의 원인에서 사회적 조건뿐 만 아니라 개인적인 능력이나 성실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소득 양극화에 대한 입장에서도 양극화는 중요한 현상이 아니며 빈곤율의 증가가 문제임으로 이를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이들의 경우 소득양극화는 자본주의에서 당연한 현상으로 부유층에게 이를 책임을 전가할 경우에 공정하게 경쟁하여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욕구나 동기가 감소되는 것을 우려하였다.

사례 11: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잘사는 사람 부유한 사람은 그런 데로 그런 이유가 있고 빈곤층은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지런해요. 그리고 남들보다 더 일을 많이 해요. 어떤 단계에 이르기까지 자기가 만족하기까지는 다른 사람보다 엄청 노력해요. 그런데 빈곤층에 있는 분들은 그런게 부족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코 흘리게 다 똑같잖아요. 근데 지금 동창회에 가보면, 학교 때에 열심히 한 사람들은 밥술은 먹고 살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힘들게 살더라고요..... 어떤 정책을 써도 지금보다 돈을 많이 걷어도 빈곤층은 어차피 생겨요. 그리고 지금보다 세금을 많이 걷으면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의욕이 떨어져요..... 그래서 세금

| | | | | |
|---------------|--------------------------|--------------------|------------------|---------------|
| 진보적 해결유형 | 16,19,36 B유형 | 15,20,22, 32,35 | 18,21 | 4,9,10 A유형 |
| 중도진보적 해결유형 | 1,6,7,25,28,29, 31,37 | 14 | 5 | 8 |
| 중도보수적 해결유형 | 24 | 17 | 3,26 | 33 |
| 보수적 해결유형 | 2,11,23,27, 38 C유형 | 12,30 | 13 | 34 |
| | 계층이동 가능유형 | 중산층 → 부유층 가능형 | 빈곤층 → 중산층 가능형 | 계층이동 불가능유형 |

그림 1. 소득양극화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범주(숫자는 사례번호)

을 너무 많이 견으면 열심히 일 안해요. 그러면 열심히 일하려는 의욕을 좌절시키는 거고 오히려 더 안 좋다고 봐요.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국인들의 많은 수가 소득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이 일관적이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이유는 개인의 노력과 성실성에 의하여 부유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배풀고 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배품과 나눔의 미덕에 대한 가치관 때문이었다.

논 의

한국인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과 특징적인 양상을 여러 가지 다양한 인식유형을 통해 알아보았다. 먼저 한국인의 실제적인 경험과 연관된 소득양극화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정의 및 이미지 그리고 소득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은 다양한 인식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계층이동 불가능유형은 부유함과 빈곤함이 모두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개인적 조건은 그다지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응답한 유형으로서,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계층이 이미 결정된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있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유층의 이미지는 재벌가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 많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자본을 모으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적인 부유층의 이미지로 보고 있었으며, 부유층에 대해서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빈곤층은 노동자를 포함한 서민으로 이미지로 가지고 있었으며, 중립적이거나 수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부유층이 아닌 사람들을 빈곤층의 의미에 가까운 서민으로 인식함으로써 다른 유형들과 비교해서 두 계층이 확연히 변별되는 양극화된 개념을 가지고 있었으며, 양극화가 한국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빈곤층에서 중산층 가능형의 경우에 부유함의 원인은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빈곤함의 원인은 환경적인조건 이외에도 개인이 노력하면 빈곤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의 노력에 의해서 부유층이 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들에 대해 부유층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본 결과 부유층이란 계층 이동불가능유형에서의 부유층의 이미지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재벌가나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입을 얻는 사람, 많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더 많은 자본을 모으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을 대표적인 부유층 이미지로 보고 있었으며, 부유층에 대해서 대체로 중립적이거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이 성실하게 노력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빈곤층에서 벗어나서 서민이나 중산층에 근접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빈곤층에 대한 이미지는 대부분 노숙자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보조금만 바라는 무능력자들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셋째, 중산층에서 부유층 가능형의 경우에 부유함의 원인은 환경적 조건 이외에 개인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빈곤함의 원인은 거의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

는 입장이었다. 이들은 개인이 노력여하에 따라 부유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데, 부유층의 이미지는 변호사,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 성공한 자영업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부유층에 대해서 긍정적이며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층의 이미지는 대개 장애인이나 심신취약자와 같이 운에 의하거나 경제불황으로 인한 사업 실패, 부도한 경우 그리고 사회구조상 교육과 자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경우를 예로 들면서 이들에 대해서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네 번째 계층이동 가능형으로, 부유함과 빈곤함의 원인이 모두 환경적 조건 이외에도 개인적인 노력이나 성실성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들은 부유층에 대한 이미지의 경우 부유층가능형의 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나서,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 성공한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의 능력과 노력여하에 따라 충분히 부유하게 살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부유층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빈곤층에 대해서는 중산층 가능유형과 유사하게 나타나서 대부분 노숙자나 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보조금만 바라는 무능력자들과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한국사회에서 소득양극화가 그다지 크다고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으며, 중산층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인의 소득양극화의 해결책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먼저 소득양극화에 대한 입장과 해결에 책임 소재에 따라서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었다. 첫째, 진보적 해결 유형은 정치적 담론에 의하면 사회적 자원

에 대한 분배적 관점에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빈곤뿐 만 아니라 상대적인 소득격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부유층이 책임을 지도록 강요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중도-진보적 해결유형은 정치적으로 사회적 자원에 대하여 비교적 분배적 관점에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절대적 빈곤뿐 만 아니라 상대적인 소득격차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면서, 이를 위해서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부유층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셋째, 중도-보수적 해결유형은 자본주의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분배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유층이 사회적 정의 실현이나 분배가치를 위해서 부유층이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은 절대적 빈곤을 줄여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인 빈곤까지 줄일 수는 없으며, 절대적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부유층이 자발적으로 책임을 지면 좀 더 긍정적인 사회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넷째, 보수적 해결유형은 자본주의 원칙인 공정한 경쟁을 분배가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어느 개인에게 책임을 더욱 강요해서는 안 되는 자유경쟁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입장은 절대적 빈곤을 줄여야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대적인 빈곤까지 줄일 수는 없다는 입장으로, 절대적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 및 사회가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하지만, 부유층에게

사회적 책임이 없다고 인식하는 유형이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의적 해결책에 이르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은 소득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피상적인 지식을 통하여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부유층과 빈곤층의 이미지와 소득의 원인을 파악했을 경우 이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다양한 인식경험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한국인들은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사회구조적 현상을 통해서 소득양극화 문제를 바라보기 보다는 흔히 접하는 대중매체나 자신의 일상경험 속에서 그들 자신과 비교되는 부유층과 빈곤층에 대한 지식으로부터 소득양극화 문제를 개념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인들의 소득양극화 문제에 대한 합의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생활습관과 가치관 및 문화 전반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인은 소득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소득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느냐에 대한 입장과 누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느냐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진보와 중도 그리고 보수에 이르는 해결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형화는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원의 분배와 이해관계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은 자신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원분배와 이해관계에 따라서 소득분배의 방식과 책임소재를 다양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이데올로기나 추상적인 정치적 담론, 학계에서 조작 정의된 개념하에서 소득양극화의 해결책을 찾기 위한 소통을 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해결책이 실질적으로 한국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

고 있고, 한국인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

셋째, 한국인들은 대체로 소득의 원인을 개인의 능력이나 성실성에 두면서도, 소득양극화의 해결책은 절대적 빈곤 뿐만 아니라 상대적 빈곤도 감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며 부유층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한국인들의 많은 수가 소득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과 해결책에 대한 인식이 일관적이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한 이유는 개인의 노력과 성실성에 의하여 부유층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배풀고 부를 나누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배품과 나눔의 미덕에 대한 가치관 때문이었다. 즉 이러한 점은 한국인의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부유층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양시키는 교육, 기부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정책 등은 소득양극화 해결책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유형화를 통해 나타난 각 유형에 대하여 대량의 표집을 통하여 심리적 특성이나 인구학적 특성을 확인해 보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예를들어 유희정(1988)은 소득수준 및 계층에 따라 소득분배문제를 비롯한 사회인식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 박세경(2005)의 연구에서도 한국의 소득계층에 따라 정부의 성장위주와 분배위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정도가 다름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소득수준 및 계층에 따라서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 및 유형에서도 중요한 차이점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정치에 대한 진보-보수성향이나 자본주의에 대한 인식에 따라서 소득양극화 인식의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고, 또한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세대 간에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난다는 선행연구들을 참고 할 때(강원택, 2005; 마인섭, 2002; 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1990), 소득양극화에 대한 인식에서도 세대별 차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유형화를 통해서 뚜렷이 구별되는 소득양극화의 입장에 대하여 각 유형간의 입장 차이를 이해하고 설득하며,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합의적 의사소통을 위한 모델을 구축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이러한 후속연구가 가능하도록 초석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앞으로 소득양극화에 대한 연구는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합리화하거나 가치편향에 기울어져서는 안 되며, 일반적인 한국인들의 삶과 분리되어 일부 계층의 논리나 추상적인 관념 혹은 조작된 수리적 개념 속에서 논의되어서는 진정한 합의적 의사소통에 이르는 길은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러한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고 한국인의 소득양극화 인식경험의 실체를 밝히고자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승복, 2005. 우리나라 임금소득불평등도의 중장기적 변화. 노동리뷰, 19-29.
- 강원택, 2005. 한국의 이념갈등과 보수·진보의 경계. 한국정당학회보, 4(2), 193-217.
- 김경모, 2001. 경남지역 소도시 청소년의 사회계층 현상에 대한 이해유형 탐구-경제적 불평등 개념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8(1), 243-269.
- 김대일, 2007. 불평등도 지표로서의 소득과 소비의 비교. 한국노동경제학회 30, 77-102.
- 김병조, 2000. 한국인 주관적 계층의식의 특성과 결정요인. 한국사회학, 34(2), 241-268.
- 김상호, 김병선, 2006. 방송뉴스 분석을 통해 살펴본 양극화의 사회적 구성. 언론과학연구. 6(3), 99-140.
- 김연희, 이희선, 2009. 한국 소득불평등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 73-98.
- 김유선, 2005. 노동소득 분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노동사회지 2월호, 4-19.
- 김홍중, 2006. 양극화 현상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정책적 대응. 한국응용경제학회, 8(2), 105-119.
- 남상호, 임병인, 2005. 소득-소비 분배구조 추이 및 양극화 분석. 경제학회지, 56(1), 219-247.
- 류정순, 2005. 양극화 해소 위한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절실. 노동사회지, 주장과 대안, 90-98.
- 마인섭, 2002. 한국의 이념지형과 민주주의. New Asia, 9(3), 13-31.
- 박경숙, 2008. 빈곤층의 생활과 의식-생활세계 내 불평등의 지배와 저항. 한국사회학, 42(1), 96-129.
- 박상규, 이병하, 2004. 빈곤층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6(4), 813-824.
- 박세경, 2005. 성장과 분배에 대한 국민의식 설문조사 결과. 보건복지포럼, 27-38.
- 신동면, 2006. 경제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소득양극화 실태와 사회보장의 과제. 사회이론, (1), 34-62.

- 신명호, 2005.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의 원인과 특징. 도시와 빈곤, 77, 5-27.
- 신명호, 2006. 한국사회의 양극화와 빈곤. 아세아연구, 49(1), 7-34.
- 신원철, 2005.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임금소득불평등. 노동사회지, 3, 10-25.
- 안중범, 석상훈, 2006. 양극화의 정치왜곡과 정책부실. 한국응용경제학회, 8(2), 47-78.
- 우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50-61.
- 유경준, 2007. 소득불평등 개념과 실태. 한국노동경제학회, 30, 103-138.
- 유종일, 하준경, 2006. 한국경제의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성장. 한국응용경제학회, 8(2), 79-103.
- 유희정, 1988. 사회불평등구조에 관한 중간계급의 의식연구. 한국사회학, 22(2), 135-154.
- 윤종훈, 2005. '착하게 살자' 구호로는 양극화 해결 못한다. 노동사회지, 노동조합과 조세정책, 99, 21-28.
- 이강국, 2005. 다보스, 포르투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세계화의 두 경제학. 후미니타스.
- 이성용, 방하남, 2009. 성-연령별 중-고령 노동자의 취업 양극화 분석. 한국노년학회, 29(2), 593-610.
- 장미혜, 2002. 사회계급의 문화적 재생산: 대학 간 위계서열에 따른 부모의 계급구성의 차이. 한국사회학, 36(4), 223-251.
- 조혜자, 방희정, 1998.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사회, 3(1), 1-15.
- 최석만, 국민호, 박태진, 한규석, 1990. 한국에서의 진보·보수적 태도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4, 83-102.
- 홍성민, 2000. 문화와 이비투스: 부르디외와 유럽 정치사상. 나남.
- 홍종학, 2006. 양극화와 경제구조개혁. 한국응용경제학회, 8(2), 5-58.
- Mayring, P. (2000). Qualitative Contents Analysis. *Forum Qualitative Sozialforschung/Forum; Qualitative Social Research*, 1(2), 64-87.
- Weber, 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2nd ed.). Newbury Park, CA: Sage.

논문 투고일 : 2011. 10. 05

1 차 심사일 : 2011. 10. 12

게재 확정일 : 2011. 11. 09

Cognitive Categorization of Korean for Reason and Solution about Income Polarization

Kim, DongSu

Kim, Okhwan

Lee, Sanghun

Jung, Taeyun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recognize the definite cognition of Korean people about Social Polarization and to define its category. For this study, Qualitative Research is provided to 38 candidates who live in Seoul. The results show that the reason of the social polarization is divided into 4 categories such as Impossible Social Class Change, Can be the middle class, Can be the Rich, Possible Social Class Change. And the solution of polarization is divided into 4 categories such as Progressive Solution, Moderate Progressive Solution, Moderate Conservative Solution, Conservative Solution. On the basis of the cross-tabulation of the reason and solution of polarization, Most of Korean have tendency to cognize the reason of polarization conservatively, but the solution of polarization is cognized progressively. And This study tries to discuss the meaning of the categories and the implications for consensual communication of Social polarization in korean society.

Key words : income polarization, social polarization, conservatism, progressivism, the wealthy class, the poverty class

부록 1. 연구 대상자 특성

| 사례 번호 | 성별 | 연령 | 학력 | 직업 | 소득 수준 | 양극화에 대한 인식 |
|----------|----|----|----|-----|----------|---------------|
| 1 | 여 | 49 | 학사 | 공무원 | 중상 | 심각 |
| 2 | 남 | 27 | 학사 | 학생 | 중 | 심각 |
| 3 | 남 | 31 | 학사 | 회사원 | 중하 | 심각 |
| 4 | 남 | 34 | 학사 | 전문직 | 중하 | 심각 |
| 5 | 남 | 45 | 학사 | 전문직 | 중하 | 심각 |
| 6 | 여 | 22 | 고졸 | 학생 | 중상 | 심각 |
| 7 | 여 | 23 | 학사 | 회사원 | 중하 | 심각 |
| 8 | 여 | 30 | 학사 | 학생 | 중상 | 심각 |
| 9 | 여 | 31 | 학사 | 학생 | 중상 | 심각 |
| 10 | 여 | 47 | 학사 | 회사원 | 중 | 심각 |
| 11 | 여 | 51 | 학사 | 주부 | 중상 | 심각 |
| 12 | 여 | 27 | 고졸 | 회사원 | 중하 | 보통 |
| 13 | 남 | 27 | 학사 | 학생 | 중상 | 심각 |
| 14 | 남 | 27 | 고졸 | 회사원 | 하 | 심각 |
| 15 | 여 | 30 | 중졸 | 전문직 | 중상 | 심각 |
| 16 | 여 | 30 | 학사 | 공무원 | 중 | 심각 |
| 17 | 여 | 30 | 학사 | 회사원 | 중 | 심각 |
| 18 | 남 | 41 | 학사 | 회사원 | 중 | 심각 |
| 19 | 여 | 49 | 고졸 | 주부 | 하 | 보통 |
| 20 | 남 | 43 | 학사 | 회사원 | 중하 | 심각 |
| 21 | 남 | 55 | 학사 | 회사원 | 중하 | 심각 |
| 22 | 여 | 50 | 고졸 | 주부 | 중하 | 심각 |
| 23 | 남 | 28 | 학사 | 학생 | 하 | 보통 |
| 24 | 남 | 29 | 학사 | 무직 | 중 | 심각 |
| 25 | 남 | 30 | 학사 | 회사원 | 상 | 경미 |
| 26 | 남 | 29 | 학사 | 회사원 | 중 | 보통 |
| 27 | 남 | 59 | 석사 | 자영업 | 중 | 심각 |
| 28 | 여 | 27 | 학사 | 회사원 | 중 | 보통 |
| 29 | 여 | 33 | 학사 | 회사원 | 중 | 보통 |
| 30 | 여 | 43 | 학사 | 주부 | 중상 | 심각 |
| 31 | 여 | 50 | 석사 | 기타 | 중상 | 심각 |
| 32 | 여 | 57 | 고졸 | 주부 | 중 | 심각 |
| 33 | 남 | 55 | 학사 | 자영업 | 중 | 심각 |
| 34 | 남 | 30 | 학사 | 학생 | 중하 | 심각 |
| 35 | 남 | 26 | 학사 | 학생 | 중 | 보통 |
| 36 | 여 | 21 | 고졸 | 학생 | 중 | 심각 |
| 37 | 남 | 25 | 학사 | 학생 | 상 | 심각 |
| 38 | 남 | 30 | 학사 | 회사원 | 중 | 심각 |